

# 자율관리어업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상호물산빌딩 A동 501호 Tel : 02)589-4604 Fax : 02)589-1500 www.korfish.or.kr ■ 발행인 : 회장 김영규 ■ 기사 편집 : 자율관리팀

## 어린 물고기, 사지도 팔지도 말자!

### 해수부, 수산물 유통담당자 대상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한 간담회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수부)는 오는 29일 유통·소비 단계에서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주요 수산물 유통업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재래시장단체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의 수산물 유통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획뿐만 아니라 불법 어획물의 시장 유통 또한 효과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해수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수산물 포획·채취 금지 규정'에 관해 설명하고 유통업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한편, 갈치, 참조기, 낙지, 꽃게 등 주요 어종의 금어기로 국내산 생산량이 감소하는 6월부터 8월까지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

할 계획이다.

아울러, 효과적인 수산자원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유통업단체의 의견을 구하고 건의사항도 함께 청취할 계획이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린 물고기 보호 정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생산량이나 유통량이 감소하여 수산물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전체 자원량이 증가하여 어획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불법으로 어획된 어린 물고기가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어업인과 소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포획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어획하거나,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자원이나 제품을 소자·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16.5.1.시행) 주요내용]

어종별	포획금지 기간		포획금지 체장	
	현행	신설·조정	현행	신설·조정
대구	11~1.31 (부산, 울산, 경남)	31~3.31 다만, 11~1.31(부산, 경남)	-	-
문치가지미	121~다음 해 1.31 (다만, 경북 21~2.28)	121~다음 해 1.31	-	-
전어	5.1~6.30 다만, 강원, 경북 제외	5.1~7.15 다만, 강원, 경북 제외	-	-
참조기	4.22~8.10(유지망)	7.1~7.31 (유지망 4.22~8.10)	<신설>	15센티미터 이하.
갈치	<신설>	7.1~7.31 (근해채취기, 연안복합 제외)	<신설>	항문장 18센티미터 이하.
고등어	<신설>	4.1~6.30의 기간 중 1개월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신설>	2센티미터 이하.
말쥐치	<신설>	5.1~7.31	<신설>	18센티미터 이하
옥돔	<신설>	7.21~8.20	-	-
미가지	<신설>	8.1~8.31	-	-
소라	6.1~8.31 (전남 여수시 삼산면, 제주도) 6.1~9.30 (경북 울릉군 울릉도, 독도)	6.1~8.31 (전남 여수시 삼산면, 제주도), 7.1~9.30, (제주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 6.1~9.30, (경북도 울릉군, 울릉도, 독도)	-	-
오분자기	<신설>	7.1~8.31(제주도)	-	-
살오징어	4.1~5.31 (다만, 정치망어업 제외)	4.1~5.31, (4.1~4.30, 근해채취기, 연안복합, 다만, 정치망 제외)	<신설>	외투장 12센티미터 이하
낙지	<신설>	6.1~6.30, (다만, 시·도지사 4.1~ 9.30 중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역별로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	-
갯장어	-	-	<신설>	40센티미터 이하
미가지 (곰치류)	-	-	<신설>	40센티미터 이하
키조개	-	-	<신설>	각장 18센티미터 이하 (부산, 울산, 강원, 경북, 경남)
대문어	-	-	300그램 이하	400그램 이하
민꽃게	-	-	<신설>	복부에 알이 붙어 있는 암컷
비고	해당 기간 중 참조기, 갈치, 고등어를 어획량의 10 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갈치, 고등어, 참조기, 살오징어는 어획량 중 각각 해당 체장의 어종을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급 평가 추진

### 현장점검 거쳐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지난 7.11~14일간 현지 점검단이 대상공동체를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활동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대한 등급결정을 위한 평가를 추진 중에 있다. 해수부는 시도 지역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검증대상 공동체 선정을 위한 분석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현지 확인·검증 대상공동체는 모범등급 상위 20% 이내, 지자체에서 추천한 우수공동체, 제13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포상후보자이다. 현지 점검단은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지방해양수산청 및 지자체 공무원 등 2~3명을 한 조로 편성하여 지난 7월 11~14일간 현지점검을 마쳤다. 한편 해수부는 현장점검이 완료되면 점검결과를 토대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최종적으로 등급 및 최우수·우수공동체를 선정한다.

국민 눈높이로 다가가는 열린 정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더 큰 가치로 돌아옵니다**

아직도 어린물고기를 잡아 드시나요?

내일을 위해 어린물고기가 충분히 크고 번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한번 알을 낳으면 몇 만 마리의 물고기가 태어납니다.  
한번만 참으면 어린물고기는 더 큰 가치가 되어 돌아옵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2016년 제1차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해외연수 - 일본

## 수산종묘방류, 어선감척 등 각종사업 ... 국가 지원 아닌 자체자금으로 추진



올해 첫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해외연수가 일본 북해도에서 진행됐다.

올해 제1차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구성원 및 지자체 관계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가 지난 6월 13~17일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일본(북해도)에서 진행됐다. 연수단은 공동체 구성원 12명을 포함,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연수는 일본 최대 민물수족관인 연어수족관을 시작으로, 관내 8개어협

연합회 및 곤부관(다시마 가공공장), HACCP 인증을 획득하여 오징어 등을 가공생산하고 있는 타케다식품 가공공장 및 '하향식 경매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하코다테 수산물 지방도매시장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연수 참가자들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관광상품 및 브랜드 개발 등 1차 산업

을 합병하여 운영하고 있는 히야마어협, 북해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쿠마이시센터 전북종묘장, 지역 특산품을 관광상품화 및 브랜드개발로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하코다테 아침시장협동조합

을 관광업과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연수기간 중 진행된 자체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는 "수산종묘방류를 비롯한 어선감척, 경매(위판)수수료 등 각종 사업을 어업인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실시하고, 이러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가의 지원이 아닌 어업인 자체자금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쿠마이시센터 전북종묘장 시설 견학

### 제2차 해외연수(노르웨이), 8월14~20일 실시

2차 해외연수는 8월 14일부터 20일까지 6박7일간 노르웨이에서 실시된다. 이번 연수에는 우수공동체 구성원 12명을 비롯, 관계기관 공무원 등 모두 15명이 참가한다.

주요 방문지는 노르웨이 청어협회, 베르겐 수산시장, 베르겐 수산국, 수산가공회사, 연어양식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노르웨이 수산자원관리 정책 및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노르웨이 최대 수산박람회인 NOR-FISHING EXPO를 방문할 예정이다.

## 2016년 상반기 신규참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현황

### 내수면 3개 공동체 포함, 19개 공동체 신규 참여

지난해 말 1,131개소였던 공동체 수는 올 상반기 19개 공동체가 신규로 참여해 금년 6월 말 현재 1,150개소로 집계됐다.

금년 상반기(1~6월) 중 신규 참여한 19개 공동체

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마을어업 9개소, 어선 4, 복합 3, 내수면 3개소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충북 1, 충남 7, 전북 1, 경북 2, 경남 8개소로 나타났다. 다음은 금년 상반기 중 신규 참여한 19개 공동체 현황이다.

- 향수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 손승우)**
  - 소재지: 충북 옥천군 안내면 성왕로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 3. 21. / 5명
  - 공동체 유형: 내수면어업 · 사업규모: 각망, 자망
- 고잡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 박창수)**
  - 소재지: 충남 보령시 신흥동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 6. 4. / 20명
  - 공동체 유형: 복합어업
  - 대상어종: 바지락, 해삼, 전복, 꽃게, 넙치 등
  - 사업규모: 마을어업 4건 92ha, 어선 9척
- 학생선주협회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 정명관)**
  - 소재지: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학성염전길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 6. 7. / 37명
  - 공동체 유형: 어선어업
  - 대상어종: 꽃게, 넙치, 조피볼락 등
  - 사업규모: 어선 19척
- 울포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 유영성)**
  - 소재지: 충남 태안군 안면읍 수로길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 6. 7. / 54명
  - 공동체 유형: 마을어업 · 대상어종: 바지락 등
  - 사업규모: 마을어업 3건 23.31ha
- 정당2리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 정태일)**
  - 소재지: 충남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 6. 7. / 86명
  - 공동체 유형: 마을어업 · 대상어종: 바지락, 가무락 등
  - 사업규모: 마을어업 4건 23.5ha
- 신아2리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 문정일)**
  - 소재지: 충남 태안군 안면읍 셋별길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 6. 7. / 72명
  - 공동체 유형: 마을어업
  - 대상어종: 바지락, 가무락, 전복, 해삼 등
  - 사업규모: 마을어업 4건 23.5ha

- 능양마을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 정성필)**
  - 소재지: 경남 통영시 하도일주로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 6. 23. / 43명
  - 공동체 유형: 마을어업
  - 대상어종: 바지락, 전복, 해삼 등 · 사업규모: 97.2ha
- 창원낙시어선업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 김창언)**
  - 소재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총장로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 6. 23. / 13명
  - 공동체 유형: 어선어업
  - 대상어종: 문치가자미, 쥐노래미, 볼락, 감성돔 등
  - 사업규모: 낚시어선 13척
- 메기양식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 권금열)**
  - 소재지: 전북 김제시 금구면 금백로 119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 3. 24. / 33명
  - 공동체 유형: 내수면어업(광역)
  - 대상어종: 메기 · 사업규모: 메기양식장 31개(173,759)
- 군위군내수면어로계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 윤주호)**
  - 소재지: 경북 군위군 의흥면 금양2길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 2. 15. / 18명
  - 공동체 유형: 내수면어업 · 사업규모: 4.27km
- 사진3리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 임한규)**
  - 소재지: 경북 영덕군 영해면 영덕대계로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 5. 7. / 26명
  - 공동체 유형: 마을어업 · 대상어종: 전복, 해삼 등
- 진동어촌계복합어업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 조영근)**
  - 소재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촌바다길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 6. 23. / 43명
  - 공동체 유형: 복합어업
  - 대상어종: 문치가자미, 쥐노래미, 새조개, 해삼, 문어 등
  - 사업규모: 마을어업 30.39ha, 어선어업

- 장곡4리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 이종덕)**
  - 소재지: 충남 태안군 고남면 장곡길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 6. 7. / 97명
  - 공동체 유형: 마을어업
  - 대상어종: 바지락, 가무락, 굴 등
  - 사업규모: 마을어업 5건 27.5ha
- 가로림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 한광천)**
  - 소재지: 충남 서산시 자곡면 우도길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 6. 7. / 26명
  - 공동체 유형: 마을어업 · 대상어종: 바지락, 굴 등
  - 사업규모: 마을어업 3건 104ha
- 매물도 대항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 김진오)**
  - 소재지: 경남 통영시 대항길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 6. 23. / 28명
  - 공동체 유형: 마을어업
  - 대상어종: 소라, 전복, 해삼 등 · 사업규모: 27.4ha
- 마도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 박종만)**
  - 소재지: 경남 사천시 저도길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 6. 23. / 24명
  - 공동체 유형: 복합어업
  - 대상어종: 바지락, 굴, 전복, 해삼, 전어, 노래미 등
  - 사업규모: 마을양식 83ha, 어선 9척
- 하일연안통발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 조경식)**
  - 소재지: 경남 고성군 자란만로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 6. 23. / 12명
  - 공동체 유형: 어선어업
  - 대상어종: 문어, 해삼, 붕장어, 노래미 등
- 강진만연안통발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 하동수)**
  - 소재지: 경남 남해군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 6. 23. / 12명
  - 공동체 유형: 어선어업
- 유포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 김대경)**
  - 소재지: 경남 남해군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 6. 23. / 45명
  - 공동체 유형: 마을어업

# 자율관리공동체 컨설팅 및 컨설턴트 활동

## 전문분야 컨설팅 안내

자율관리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분야컨설팅이 실시된다. 기 참여 공동체 중 특정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희망하는 공동체에 대하여 해당분야 전문가가 3~5회의 범위 내에서 직접 공동체를 방문하여 공동체가 요구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게 된다.

컨설팅이 필요한 주요 전문분야로는 수사자원의 조성 및 관리분야, 체험시설 등 관광과 연계한 분야, 공동체 경영분야, 공동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 및 유통분야 등이 있으며,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희망분야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하게 된다.

전문분야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한 공동체에서는 언제든지 지자체 수산사

무소를 통하여 한국수산회로 신청할 수 있으며, 타당성 검토 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 연락처 : 한국수산회 자율관리팀(전화 02-589-4604, 4609)

## 지역담당 컨설턴트, 컨설팅 이외 교육활동에도 적극 참여

지역담당 컨설턴트(12명)는 공동체에 대한 컨설팅뿐만 아니라 관할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및 아직 자율관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어촌계 어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도 적극 참여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율관리어업 확산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6월 중에 활동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김동철 컨설턴트

- 2016. 6. 24. / 전남 보성군 선소공동체 38명 대상
  - 주관 :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장흥지원
  - 자율관리공동체의 필요성과 발전방안
- 2016. 6. 29~30. / 전남 강진 백사하저·봉황공동체 69명 대상
  - 주관 : 전남해양수산과학원 강진지원
  - 자율관리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



### ▷ 서광일 컨설턴트

- 2016. 6. 21. / 창우어촌계 19명 대상
  - 주관 :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영광지원
  - 자율관리어업 정책소개, 관리규정 및 평가내용 등 교육
- 2016. 6. 30. / 목포낙지연승공동체 50명 대상
  - 목포낙지연승공동체 정기모임에서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자율관리어업 정책 소개, 관리규정 및 평가내용 등) 실시

### ▷ 김옥환 컨설턴트

- 2016. 6. 23. / 통영시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 및 간사 64명 대상
  - 주관 : 경남수산기술사업소, 통영시 자율관리공동체연합회
  - 자율관리어업 개념 및 주요 활동내용, 개정된 규정 주요내용 등
- 2016. 6. 28. / 경남 가리비양식어업인, 가리비 종묘생산업자 등 98여 명 대상
  - 주관 : 경남수산기술사업소
  - 국내외 가리비양식 현황, 가리비 인공 종묘생산 현황 및 기술 등에 대한 교육 참석



### ▷ 천명길 컨설턴트

- 2016. 6. 15. / 모도공동체 25명 대상
  - 주관 : 인천광역시 수산사무소
  - 수산자원 관리방안 및 자율관리어업 발전방향 등 교육
- 2016. 6. 17. / 큰무리공동체 33명 대상
  - 주관 : 인천광역시 수산사무소
  - 수산자원 관리방안 및 자율관리어업 발전방향 등 교육



### ▷ 임희순 컨설턴트

- 2016. 6. 29. / 충북 한수·청풍·금수·수산내수면공동체 37명 대상
  - 주관 : (사)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 자율관리어업 발전방안, 어업인 현장건의 및 애로사항

## 해수부, 7월 어식백세 수산물 '메기·동자개·전복' 선정



메기·동자개



전복

산치직송 수산물 전문 쇼핑몰 피쉬세일 [www.fishsale.co.kr](http://www.fishsale.co.kr)

식탁 위의 건강한 먹거리 피쉬세일이 차려드립니다.

어업인 수산물 인터넷판매 한국수산회가 도와드립니다.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곳  
**여름휴가는 어촌에서 보냅니다.**

우수공동체 탐방 / 고창 하전자율관리어업공동체

# 한파 등 자연재해 극복과정에서 공동체 화합 도모

## 전국 최대 바지락 생산지 ... 선진공동체 진입으로 재도약 기대



하전공동체 권영주 위원장

전국 최대 바지락 생산지로 손꼽히는 전북 고창군 하전자율관리어업공동체(위원장 권영주)는 지난 2012년 겨울 예상치 못한 동절기 한파로 이듬해까지 하전지선에서 생산되는 바지락의 80% 가량이 폐사하는 아픔을 겪었다. 장관이 현장을 찾아 폐사 대책을 논의하고, 관계기관 현장조사 및 대책회의가 잇따라 열렸다.

이 사고로 인해 1200여 ha에 이르는 광활한 갯벌에서 연간 2만여 톤의 바지락을 생산해 온 공동체 회원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으며 실의에 빠졌다. 국내 바지락의 연간 생산량이 4만 톤 정도임을 감안하면 하전갯벌의 피해 규모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지난 2001년 자율관리어업 태동기에 공동체를 결성해 이듬해 전국 2위 우수공동체로 선정된 저력있는 하전마을 170여 공동체 회원들도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앞에서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다. 이때 실의에 빠진 회원

들을 다독이며, 희망의 불씨를 지핀 이는 권영주(56) 위원장이었다.

폐사체 수거처리와 바지락어장 생태복원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기 위해 밤낮없이 뛰어다닌 권 위원장이 20ha 규모의 종패 발생장 조성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어업인들의 재기를 독려하자 공동체 회원들도 힘을 내기 시작했다. 건강한 바지락어장 조성을 복원사업에 발 벗고 나서는 한편 해안가 청소작업에도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졌다.

하전갯벌은 생육에는 더할 나위없이 좋은 환경이지만 자연종패가 발생하지 않아 그동안 연간 1만톤, 150억 원 상당의 바지락 종패를 구입, 살포해 오고 있는 터라 안정적인 종패 육성이 현안 과제였다. 지금은 바지락 종패 인공육성장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중이다.

“바지락도 조속히 재해보험을 적용하는 등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권 위원장은 현재 국내 수요량의 절반 정도인 4만여톤이 중국에서 수입되는데, 어업인들이 바지락 생산에 주력하기 위해서는 ‘정책보험’이라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지락은 한파뿐 아니라



전국 최대 바지락 생산지인 고창 하전공동체에서 회원들이 바지락을 채취하고 있다. 하전공동체는 지난 2012년 동절기 한파로 인한 대량폐사의 시련을 극복하고 선진공동체로의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여름철 비가 많이 오지 않아도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생산과 함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권 위원장은 지난해 5월 하전마을뿐 아니라 인근지역에서 바지락을 생산하는 200여 어가들이 참여하는 ‘하전바지락협회’를 결성했다. 자금이 급한 일부 어업인들이 싼 값에 출하하면 잇따라 가격이 하락하는, 무질서한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서였다. 현재 협회에는 생산분과와 유통분과를 두고 출하조절뿐 아니라 생산정보도 교환하며 안정적인 바지락 생산 및 유통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재 자립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하전공동체가 선진공동체로 발돋움하

기 위해 전 회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만큼 선진공동체가 되면 가공공장 건립 등을 통해 ‘명품 하전바지락’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권 위원장은 덧붙였다.

하전마을은 고품질 바지락 생산지 이외에도 어촌체험마을로도 이름이 꽤 알려져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을 강타한 ‘메르스’ 영향으로 내방객이 주춤했지만 매년 4만여명의 유료 체험객이 방문하는 고창군의 새로운 어촌관광지이다. 지난 2006년에는 어촌체험마을 경진대회 최우수마을로 선정되기도 한 하전마을이 전북을 넘어 우리나라 자율관리어업을 선도하는 어촌마을로 성장하기를 염원한다.

미조본촌자율관리어업공동체

# 체포체장 제한 확대로 자원관리 주력 ... 정치망 공동운영 모범사례



미조본촌공동체 권대석 위원장

남해군 최남단에 위치한 미조본촌마을은 88명의 공동체 회원들이 어촌멀치잡이 정치망과 대구잡이 호망, 가두리양식장, 자망통발 등 어선어업, 바지락과 피조개양식장 등 다양한 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복합공동체이다.

지금은 정치망어장에서 멀치를 잡아 건조작업과 선별을 거쳐 매일 관내수협에 출하하느라 실 틈이 없다. 외국인 2명을 포함, 7명이 작업을 하는 9.3ha 규모의 정치망어장은 미조본촌공동체 소유로 마을의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다. 정치망은 관리가 까다로워 개인이 아닌 어촌계에서 공동

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이곳 정치망에서는 연간 3억~3억5천만의 매출을 올려, 공동체 자체 적립금 이외에도 회원들에게 1인당 200만원 상당의 배당을 줄 수 있는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다.

“자율관리를 통한 회원간 단합과 신뢰가 없이는 정치망 운영은 쉽지 않다”는 권대석 위원장은 비록 자율

관리어업 참여는 2011년으로 늦은 편이지만 공동체 운영만큼은 남해군 관내에서 으뜸이라고 자부한다.

공동체 설립 이후 해삼과 전복의 금어기를 확대하고, 29ha의 마을어장에서 절반가량인 15ha에 대한 어장휴식년제를 실시하는 등 자원관리에 적극 나섰다. 또 불법어업 감시원 제도를 마련하고 전복(8cm), 불락(16cm), 감성

돔(22cm), 우럭(25cm), 참돔(27cm) 등의 체포체장 제한을 통해 연안어장의 자원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이곳 미조마을은 적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어장 환경으로 해마다 크고 작은 적조피해가 시달리고 있다. 특히 지난 2013년에는 대규모 적조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자 남해군은 적조 다발지역인 이곳 미조본촌마을에 황토야적장을 설치, 공동체 회원들과 대대적인 방제대책을 펼쳤다.

“공동체 결성이전에는 가두리양식업 종사자 위주로 방제작업을 펼쳤다면, 지금은 전 공동체 회원들이 합심해 적조에 대응하는 모습은 자율관리어업의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마을에 사료보관용 냉동창고가 없어 인근 남해군수협 창고를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또한 자체자금 1억원을 들여 부지를 확보해 놓는 등 준비된 공동체로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



남해 미조본촌공동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치망어장에서 은빛 멀치를 건져 올리고 있다. 철저한 자원관리로 여타 공동체의 모범이 되고 있는 미조본촌공동체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회원간 단합과 신뢰를 회복하는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 이슈 중국 불법조업 담보금 3억원으로 상향

### 단속 전담 T/F팀 신설, NLL해역 함정 추가배치 기동 전단 운영 연평도어장 확대 어기 연장 추진...무허가 어선 몰수위한 법 개정

정부는 무허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담보금을 최고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하는 한편 봄가을 꽃게 성어기에 이 해역에 경비함정을 추가배치하고 '중국어선 단속 기동 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중국 무허가 어선을 몰수할 수 있도록 배타적경제수역(EEZ) 어업법 등 관련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해 5도 어업인의 생업 및 소득증대, 안전조업을 확보하기 위해 연평도 어장확장과 어기연장을 추진하고 중국어선이 출몰하는 해역에 인공어초의 성능을 함께 보유한 수중 구조물을 집중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7월 11일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등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을 서해 5도 어업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외교적인 노력 강화 차원에서 해양수산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외교부 어업문제 협력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의 실효적이고 가시적인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춰 불법조업 및 어업인 지원 대책을 실효성있고 빠르게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가



우리 해역에서 선단을 이뤄 조업하고 있는 중국어선. 우리 정부는 중국 무허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을어기가 시작되기 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내년 꽃게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 이전에 주요 대책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재정이 소요되는 예산 확보와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하게 조정, 해소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벌금 상향조정 등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의 협조를 얻어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 서해 NLL 중국어선 단속 대책

정부는 봄가을 꽃게철에 경비세력을 증강 배치해 불법 중국어선을 원천 차단한다.

이를 위해 서해 NLL 해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한다. NLL 해역의 특수성을 감안, 무장과 기동성을 갖춘 중형 경비함정과 방탄보트 등을 추가 배치한다.

불법조업 처벌 강화를 위해 양국의 허가가 없는 어선은 몰수·폐선하고 무

허가어선의 담보금을 최고 2억에서 3억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관련, 오는 9월 EEZ 어업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제출 절차를 마무리한다.

불법조업 선박은 선장 구속수사, 담보금 최고액(2억원)을 부과하고 어구회몰 압수와 올해부터 담보금 미납 선박 억류를 강화한다. 중대사항 위반 어선은 중국 해경선에 직접 인계, 이중 처벌을 유도한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를 위해 9월에 예정된 한-중어업공동위원회에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이미 구축된 양국 공동단속 협력 체계 강화와 내실화를 추진한다. 3회에 걸친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와 2회의 단속공동원 교차승선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심각성을 전달한다.

우리 측이 제공한 불법조업 정보를 활용해 중국이 자국어선을 단속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공동단속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올해 안에 구축을 완료하기로 하고 4억 7,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한다.

#### 서해 5도 어업인 지원 방안

정부는 서해 NLL 주변해역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방지용 수중 구조물 설치를 통해 어업인 피해 방지와 수산자원 조성·보호 강화를 위해 불법조업 방지 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국비 20억원을 투입해, 구조물 18기를 설치했으며 올해 서해 5도 꽃게 금어기(7월 1일~8월 31일) 종료 이전에 중국어선이 집중 출몰하는 연평도 해역에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형어초 16기를 우선 설치한다.

이와 함께 80억원(예비비)의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 현지여건, 설치가능 장소를 감안해 연평도와 백령·대청도 해역에 대형어초 64기를 오는 11월까지 확대 설치한다.

#### 수산자원 조성

정부는 어장확대와 조업시간 연장을 추진한다.

후반기 꽃게 성어기(9~11월)에 국가지도선을 추가 배치해 시범적으로 1개월간 실시한 이후 어업인 안전과 근 작전수행 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국방부와의 협조를 통해 관련규정을 개정한다.

연안어장 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해 발생한 유실·침적어구를 수거한다. 올해 예산을 당초 2억원에서 3억으로 확대 추진하고 유실·침적어구 규모 등을 감안해 2017년 예산을 추가 반영한다.

서해 5도 연안 생태계 서식환경 조성을 통한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연안 바다목장을 설치한다.

## 페어망·로프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대책 본격 추진

### 해수부, '어구관리법·해양폐기물법' 연내 제정

해양수산부는 최근 연안 선박에서 자주 발생하는 페어망 및 페로프가 추진기에 감기는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선박 추진기에 페어망이나 페로프가 감기는 사고는 평균 주 1회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사고 중 대부분은 한두 시간 운항 지연에 그치지 만 기상악화 시에는 선체의 전복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1993년 292명의 인명을 앗

아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나 지난해 9월 발생한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도 모두 추진기에 로프가 감겨 선체가 복원력을 상실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페어망 등 원인물질 발생을 억제하고 수거를 강화하는 한편 선박에 로프커터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안에 '어구관

리법'을 제정, 생산 및 유통, 사용 및 수거까지 어구의 단계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이어 해양폐기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양폐기물법'도 제정, 해양쓰레기와 폐기물, 오염퇴적물의 배출금지, 관리책임 강화 및 정화 등에 관한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해양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현행 부유물 및 침적쓰레기 수거사업 대상지역에 로프 감

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역도 포함시키고 부유 쓰레기가 많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을 파악해 선박 소유주 및 선원 등에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시중에 보급중인 로프커터에 대한 실증시험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 안전성과 효용성 검증을 통해 이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 어업인이나 해양종사자에게 선박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해역별 사고 발생현황을 도식화한 해양부유물 현황도를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해수부, 2016년산 김·미역 생산 '맑음', 굴 '흐림'

2017년산 김·미역 생산량은 증가, 굴은 여전히 부진 전망



해수부는 2016년 김, 미역, 굴의 생산동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2016년산(年産) 김과 미역 생산량은 호조를 띤 반면 굴은 부진세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7년산 김·미역 생산량은 증가, 굴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산(年産)은 전년도 9월부터 익년도 5월말까지 생산된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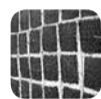
해양수산부는 2016년산 김, 미역, 굴의 생산동향을 분석하고 2017년 전망을 이같이 발표했다. 해수부는 양식 어가의 합리적인 어가경영과 자율적인 수급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생산실적과 전망을 내놓았다. 해수부는 생산 어기가 있는 양식 수산물이 어기 초 해황과 기상 여건 악화로 매년 생산 부진이 반복되고 있는데 따라 수산물 가격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 아니

라 수급에도 적잖은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정적 생산을 위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우량 품종을 개발하고 양식어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아울러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국내외 안정적 소비자 확보를 위해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에도 힘쓰기로 했다.

다음은 품종별 생산 실태와 전망이다.



김

2016년산 김 생산량은 1억2750만속으로 2015년과 비슷했다. 다만 kg당 산지가격은 전년 784원보다 30% 높은 1,014원이었다. 생산 초기에는 고수온과 안개(11~12월), 강풍과 폭설피해(1~2월)로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적었으나 3월 이후 해황과 외해어장 작황 호전으로 지난해 수준을 회복했다.

지역별로는 전남과 부산지역의 경우 어기 초 기상 악화 여파로 전년산보다 감소했으나 전북과 경기지역은 전년과 달리 작황이 양호해 증가했다.

산지가격은 생산 초기의 공급량 감소와 지속적인 수출 증가(전년 대비 19%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올랐다. 특히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작황 부진으로 한국산 김 수요가 증가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됐다. 2017년산의 경우 김은 신규어장이 확대돼 생산량이 1억3400만속으로 올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수출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2017년산 김 산지가격은 2016년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역

미역 생산량은 43만톤으로 지난해보다 9% 증가했다. 산지가격은 전남 지역 상품의 품질 향상과 부산지역의 생산 감소로 전년보다 높게 형성됐다. 또한 5월까지 누적 수출량은 환율 상승과 대일본 수출 여건 회복으로 전년 동기보다 25% 늘었고 누적 미

역 수입량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미역은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향상돼 산지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현재 양식어가들의 미역 생산 의향이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2017년산 미역 생산량은 2016년산보다 많은 45만톤으로 전망된다.



굴

굴 생산량은 약 3만3000톤으로 지난해보다 4% 감소했다. 산지가격은 어기 초부터 김장철까지는 전년 동기보다 높았으나 어기 중반 이후 수출 수요 감소로 낮게 형성됐다. 또한 5월까지 누적 수출량은 5,476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이는 일본의 굴 생산과 수출 회복으로 한국산 굴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굴은 시설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올해와 유사한 3만3000톤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월하굴이 예년에 비해 많아 2017년산 어기 초 굴 산지가격은 다소 낮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돼 2017년산 어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2015년 어가경제조사 분석

지난해 어가 평균소득 상승세 기록

4,389만 5,000원 전년대비 7% 늘어 ... 양식소득 증가가 주도

지난해 어가 평균소득과 가계지출이 동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가 평균자산은 두 자리 수로 늘어난 반면 부채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어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어가 평균소득은 4,38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7.0% 증가했다. 가계지출은 2,957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7% 늘어났다. 어업소득은 어류, 해조류 등의 양식수입이 늘어 전년대비 10.0% 증가했으나 어업외소득은 겸업소득과 급료수입에 의한 사업외소득이 감소해 전년대비 1.4% 줄었다.

2015년말 기준 어가의 평균자산은 3억5,337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1.9% 증가했다. 보유부채는 4,164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0.6% 증가했다.

● 양식 어가 ●

전년보다 7% 늘어난 어가 평균소득을 소득종류별로 보면 어업외소득은



통계청은 최근 지난해 어가 평균소득이 전년대비 7% 증가하는 등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1.4% 감소한 반면 어업소득은 10.0% 증가했다.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은 각각 17.0%, 5.6% 늘어났다.

어가소득 중 어업소득 비중은 52.6%로 전년대비 높아진 반면 어업외소득은 26.7%로 낮아졌다.

2015년 어업소득은 2,308만 6,000원으로 양식수입의 증가 영향으로 전년대비 10.0% 증가했다.

어업총수입은 5,06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8.6%, 어업경영비는

2,756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7.5% 각각 늘어났다.

어로수입은 어류·갑각류 등의 수확량 감소영향으로 전년대비 5.2% 감소했으나 양식수입은 해조류와 어류 등의 양식작황 호조로 전년대비 22.8% 증가했다.

● 가계지출 ●

2015년 어가의 가계지출은 전년대비 4.7% 증가한 가운데 소비지출의

경우 2,258만 8,000원으로 교통비와 교육비 지출은 감소한 반면 식료품과 비주류음료, 보건, 음식숙박업 등에서 늘어나 전년대비 3.8% 증가했다.

비소비지출은 698만 4,000원으로 공적연금, 사회보험납부금, 사적비소비지출 등이 증가해 전년대비 7.8% 늘어났다.

● 자산부채 ●

전년대비 11.9% 늘어난 어가 평균 자산 중 토지, 건물(구축물), 무형자산 등의 고정자산은 2억3,641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8.0% 증가했다.

유동자산은 1억1,696만 2,000원으로 금융자산 등에서 증가해 전년대비 20.8% 늘어났다.

지난해 대비 소폭의 증가세를 기록한 어가 보유부채 가운데 어업용 부채는 전년대비 1.3% 감소한 반면 가계용과 겸업·기타용 부채에서 전년대비 각각 2.9%, 2.2% 증가했다.

### 해수부, 7월부터 낚시명예감시원 운영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7월부터 낚시명예감시원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9월 돌고래호 전복사고의 후속조치로서 추진하는 것이다.

해수부는 7월 1일 그동안 모집공모를 통해 자율적으로 참여한 일반국민과 낚시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된 국민들 중에서 100명을 선발해 낚시명예감시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전국 항·포구의 낚시어선과 낚시터 등에서의 불법영업, 사행행위, 유해낚시도구 사용, 금어기와 금지제장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수산자원 및 환경보호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해수부는 7월 1일 열린 낚시명예감시원 위촉식과 출범식에서 이들의 소속감과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한편 활동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 전북도, 연안 자원조성 어린 꽃게 20만마리 방류 경제성 있는 꽃게 방류로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소장 김유곤)는 연안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꽃게를 대량 증요생산해 7월 8일 군산, 부안군 연안에 어린 꽃게 20만 마리를 무상 방류했다.

최근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꽃게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바 도내 어업인들이 꽃게종묘방류를 희망하고 있고, 게다가 이 종은 성장이 빠르고 식용 가치가 높아 경제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우리 연구소에서 증요생산을 통한 무상 방

류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꽃게는 어미 꽃게를 구입하여 어미관리를 통한 성숙 과정을 거친 후 부화 유도하여 식물플랑크톤, 로티퍼, 알테미아, 배합사료, 조갯살 등을 먹여 조애아 유생, 메갈로파 유생을 거쳐 갑폭 1cm 정도의 꽃게로 성장시킨 것이다.

수산기술연구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린꽃게를 대량 생산·방류하여 수산자원 조성 및 지역어업인 소득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 해수부-유통업계 수산물 안전과 신뢰 제공 해수부장관과 수산물이력제 활성화 업무협약



해수부는 수산물이력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 백화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양수산부는 7월 7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롯데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현대 백화점, AK PLAZA 등 4개 백화점 대표들과 수산물이력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수부와 백화점 4개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산물이력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할 것을 합의했다.

이 업무협약은 이력표시 수산물의 홍보·판촉행사 등 유통 촉진을 위한 협력, 참여 희망 업체 컨설팅과 담당자 교육, 이력표시 수산물의 우선 취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협약 체결식에서는 김영석 장관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수산물이력제 제품의 이력 조회를 시연했다.

체결식 직후 참석자들이 수산물이력제의 발전 방향과 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개최됐다.

수산물이력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산과 원양산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전과정의 수산물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수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수산물이력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수산물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 거제 새우조망공동체 치어 방류



거제 새우조망공동체(위원장 서경수)는 거제시·거제수협과 함께 7월 7일 지세포항에서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치어방류행사를 가졌다. 이날 공동체

는 1만3000마리의 치어를 방류하는 한편 지세포 방파제 청소, 폐어구 수거 등 연안 정화활동도 펼쳤다.

### FIRA, 제3차 수산자원포럼 개최 수산자원조성을 미래형 유망산업으로

FIRA(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강영실)는 지난 6월 30일 부산 벡스코에서 수산자원조성·관리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국내 유일의 민관·산·학·연 협업체계인 수산자원포럼을 개최했다.

수산자원포럼은 수산자원조성·관리 사업을 미래형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분야별 최고수준 전문가들과의 소통 및 교류 강화로 각종 현안 및 현장 애로 사항을 발굴·해소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2년간의 운영 실적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계획 설정을 중심으로 논의됐으며 특히, 수산 선진국과의 교류 강화를 위해 일본 및 프랑스의 전문가를 초빙해 외국의 수산자원 조성·관리에 대한 방안을 들었다.

또한 바다숲 복원의 대대적 국민 동참을 위한 바다녹화운동본부 총회와도 연계되어 관련 분야의 관심이 집중됐다.

### 수산과학관, 누적 관람객 500만명 돌파!



한국수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산과학관은 최근 누적 관람객 500만명을 돌파해 기념행사를 가졌다.

부산 기장에 위치한 국립수산물관리원 내 수산과학관(관장 최경욱)은 7월 16일 개관 이후 누적 관람객 500만명을 돌파하여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500만번째로 수산과학관을 입장한 행운의 주인공은 부산시 남구 심성민씨(35). 가족과 함께 수산과학관을 찾은 심씨는 “수산과학관은 평소 가족, 지인들과 함께 자주 찾는 곳으로 수족관 리모델링 소식을 듣고 수산과학관을 찾았는데 뜻밖에 500만번째 관람객이라니 영광” 이라고 말했다.

심씨는 수산과학관으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꽃다발을 선물 받고 기념촬영의 시간도 가졌다.

또한 수산과학관은 500만번째 전후 관람객에게도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하고 500만번째 이후 끝자리가 5번째로 입장하는 관람객 10명에게도 기장특산물 세트를 증정했다.

한편 한국수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산과학관은 올해 초 수족관 전체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바람개비 테마 동산, 전통놀이 체험코너 조성 등 관람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보다 많은 관람객이 수산과학관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 치어방류로 수산자원보호 '앞장'

대형기선저인망수협, 말쥐치, 참돔 등 53만미 방류



대형기선저인망수협은 최근 거제와 부산에서 치어방류행사를 잇따라 갖고 수산자원조성에 적극 나섰다.

대형기선저인망수협은 6월 21일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항에서 조합원 및 조합소속 선원들과 함께 치어방류 행사를 가졌다.

이번 치어방류 행사를 통해 말쥐치 18만미, 참돔10만미(경남수산자원연구소 동참)를 방류했고, 오는 24일 2차 치어방류 행사는 부산 암남공원 주차장에서 말쥐치 15만미, 조피볼락 10만미(부산수산자원연구소 동참)로 올해 총 53만미를 방류하여 어업인의 의식전환과 미래를 위한 수산자원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1986년 한해 33만톤이 잡힌 어획량이 현재 100분의 1이하로 줄어든 1,000톤에 불과하여 사라져가는 말쥐치를 중심으로 대형기선저인망수협이 앞장서 치어방류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로 2년째를 맞이하는 치어 방류 행사는 조합원, 선사직원, 수협직원 및 관련협회 등 자발적으로 일부 기금을 마련했으며, 부산수산자원연구소 및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와 업무협력협약 체결로 매년 치어방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신품종 '갯벌 토굴' 양식 기술 나온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유럽 등 선진국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토굴(벚굴)을 갯벌어장의 새로운 소득품종으로 개발하기 위해 양식기술 개발과 갯벌어장 현장 적응시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토굴은 조간대부터 수심 20m에서 서식하는 넓적한 형태의 대형 개체굴(참굴의 3~4배)로 1마리당 200g 내외다.

유럽에서는 kg당 2만3000원으로 참굴(kg당 9200원)에 비해 2.5배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국제갯벌연구소는 올해 '토굴' 인공종묘 생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모패 150마리를 확보해 2000만여 개의 수정란 생산에 성공했다. 이어 부착 효율과 양식 방법을 찾기 위한 부착 기질 등도 연구하고 있다.

## 고등어 소비촉진, 민관 나섰다

롯데마트 서울점서 직거래 대전 개막식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 롯데마트가 최근 미세먼지 누명을 벗은 고등어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함께 나섰다.

해수부는 국민생선 고등어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수협중앙회, 롯데마트와 함께 직거래 행사를 7월 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3일까지 펼쳐졌다.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김영석 해수부 장관, 김임권 수협중앙회장, 롯데마트 사장, 임준택 대형선망수협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등어구이 등 무료 시식회를 갖는 한편 고등어 사은품을 증정했다.

## 전국수산단체장협의회 활동 재개

한국수산회, 수협중앙회 등 14개 단체 참여



수산단체장들이 수산계 현안사항에 대해 공동대처할 수 있는 협의체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을 비롯, 장경남 한국원양산업협회장 등 수산계 주요 14개 단체장들은 지난 7월 8일 서울 송파구 가락몰내 음식점에서 오찬모임을 갖고, 협의회를 통해 수산단체간 친선도모 및 수산업 현안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협의회 의장은 김영규 한국수산회장이 추대됐다.

협의회는 앞으로 분기별 정례모임을 통해 수산단체장들의 여론을 결집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2005년 발족된 협의회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 수산분야 현안사항에 대해 공동대처해 왔다. 이후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출범과 함께 활동을 중단했으나 앞

으로 한수총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 활동재개 모임에는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과 정영훈 수산정책실장이 참석, 단체장들과 상견례를 겸해 수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로 환담했다.

새로 출범한 수산단체장협의회에는 △수협중앙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무역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전국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 △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 △한국수산회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 (사)한국자율관리어업 연합회 소식란

#### 충북 내수면공동체 대상, 지역순회교육 실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는 지난 6월 29일 충북 제천 수산면사무소에서 청풍내수면, 금수내수면, 한수내수면, 수산내수면공동체 등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관리어업 지역 순회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자율관리어업 정책방향, 개정된 관리규정 주요내용 등을 강의하였다. 아울러, 충북 자율관리어업연합회의 조직 안정화 및 강화를 위하여 열띤 토의를 진행하였다.



#### 제13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대행업체 제안설명회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는 지난 7월 15일 충북 오송에 있는 연합회 사무실에서 해양수산부, 동해시청, 한국수산회, 연합회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대행업체 제안설명회」를 추진하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제안업체 2곳의 설명회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제12회 전국대회를 개최했던 '코리씨애디' 업체가 오서현사 업체를 선정되었다.

